

2019
8, 9 월



에스와티니 예수마을

하나님의 꿈이 이뤄지는 예수마을 이기들..

예수마을에 네번째 단기팀이 다녀갔 습니다. 이번에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중.고.청년팀 28명입니다.

남아공의 선교지에 살고 있는 그들이라 현지적응.이해도 빠르고 영어도 탁월하여 5 박6일의 일정이 더 빨리 지나갔습니다.

케이프에서 오긴했으나 거의 12시간만인 늦은 밤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은 한시간 을 걸어가며 이곳 아이들이 다니는 길을 따 라 학교까지 다녀왔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학기중이라 성경학교에 많이 참석할까 조금 우려되긴 했으나 3일간의 성경학교에 첫날 에는 280여명, 310여명,마지막날엔 350 여 명이 참석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번의 팀을 만나본 이곳 아이들은 아 주 많이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되어 찬양과 성 경공부, 여러가지 활동들, 미니올림픽까지 즐겁게 참석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울려 나는 웃음소리가 어찌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벽찬 감격으로 눈물이 핑돕니다.

셋째날에는 예수마을 축구팀과 단기팀 의 친선축구 경기도 하며 예수안에 함께하 며 하나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매일 저녁 집회도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둘째날에는 제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 로, 셋째날에는 박선교사가 성령충만이라 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인도 하며 함께 주님앞에 머물며 큰 은혜를 받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 여정속 에 또한번 더 머물렀습니다. 기가막힌 하나 님의 섭리와 행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고 누 리며 그 은혜로 서게 되는 시간들. 하나님 의 증인되어 단기팀과 우리 아이들의 증인 되어 예수마을을 일구어가는 우린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황송한 은혜를 찬양하며



하반기 일정과 기도제목

- > 8. 12~9. 9 [2 Term방학 특별활동운영]
- > 8.22~ 9.24 [한국방문]
- > 11월 [협력교회 단기팀]

-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생 명이 넘쳐나는 예수마을 되기를.
- 이곳에 학교가 절박한데 필요를 따라 학 교가 지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 기를.
- 한국방문을 통해 2기 사역을 향한 하나 님의 행하심을 찾고 재충전되기를.
- 두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 임 하시길.

2019
8,9 월



에스와티니 예수마을

겨울방학 특별활동

아프리카의 겨울이 끝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가 있는동안 우리가 없는데 수업이 가능할까? 직원을 믿고 다 맡겨도 되려나?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더 나올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10주동안의 방과후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열심을 보았고, 직원에게 본을 보여주었기에 잘 진행해 가리라 믿고 이번주부터 방학특활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컴퓨터반에 13명, 오늘 성경반에 16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공부방을 꾸미고 책과 교구들도 모아두었습니다. 매일 9-10시까지의 자유 독서시간. 기도하고 성경읽으며 나누고, 요일별 특활을 진행해갑니다. 월,수는 컴퓨터. 화요일은 성경반,목요일은 수학과 미술반. 금요일은 독서,논술반과 어린이예배로 진행합니다.

한국에 가 있는동안 필요한 교안, 간식, 교구등을 준비하고 직원훈련도 반복하게 됩니다. 예수마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그리고 보내주신 동역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가리라 신뢰하며 한가지씩 챙기고 확인을 합니다.

예수마을 입주후 최장시간 비워두어야하고, 진행중인 우물공사와 다리공사도 마무리를 해야하니 박선교사도 분주합니다. 여호와 이레!

봄을 알리는 보슬비가 내린 예수마을은 더욱 맑고 아름답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남아공 헬더스트롬 교도소

교도소에서 만나는 예수님..

2012년부터 헬더스트롬 교도소 맥시멈에서 형제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맥시멈에는 형량이 긴 형제들이 그리고 미디엄에는 형량이 짧은 형제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미디엄과 맥시멈에 각각 1000명 가량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현지 동역자들과 매주 수요일 맥시멈에 있는 30여명의 형제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교도소에는 있는 예배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 70여명의 형제들이 매주일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형량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형제들로부터 소식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제롬이라는 형제로부터 지역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 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한 형제가 그려준 가족 사진

음식나눔사역

푸드 트레일러

아프리카의 겨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긴 여정의 생존과의 전쟁입니다. 대부분의 농장은 문을 닫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끼의 음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음식을 기다립니다.

1년전 이동이 가능하고, 조리가 가능한 푸드트럭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트레일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트레일러 안에는 조리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구비되었고, 이동이 가능하여 어디든 필요를 따라 섬김이 가능합니다.

한번 나갈때마다 2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푸드 트레일러 음식나눔... 아프리카의 겨울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2019
8,9 월



어린이 장학대상 King's Kids

1월부터 6월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듯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는 소중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신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7월부터는 '예수님 알기 시리즈'의 첫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주제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이 목마를 때와 배고플 때를 알고 먹이시는 예수님, 약한 양을 노리는 늑대가 나타나도 "나 살려라!" 도망치지 않으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양 한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예수님, 그 양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목자 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임을 비유적으로 배웠습니다. 과연 비유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할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손수 솜털을 붙여가며 양을 만들면서 나는 주님의 어린양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사실을 마음깊이 느끼기를 소망해 봅니다.

8월엔 예수님 알기 시리즈 두번째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떠한 표적으로 나타났는지 많이 알려주어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엄마가 아플때 뭘할건가요?" 묻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기도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커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성사역 기도제목

1. 11월 어머니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9월에 강사스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사스쿨을 통해 좋은 강사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해피맘' (여성사역) 메뉴얼이 막바지 준비작업(디자인&인쇄준비과정)에 들어 갔습니다 (8월말 인쇄예정). 하나님의 도우심속에 메뉴얼이 잘 마무리되어 이 메뉴얼이 사용되어 지는 곳마다 엄마들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트랜스카이 독일 단기팀

트랜스카이 농업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독일팀이 트랜스카이에 찾아왔습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한 가정 이곳에 열흘간 머물며 인근 학교를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모아 주일학교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농업프로젝트에 필요한 준비 사역들도 함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곳에 찾아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땅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는 단기팀을 보며 주님께서 이곳을 불드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현지인들과 헌신과 열정으로 이곳을 찾아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기팀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게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트랜스카이 연합예배 주일학교/ 성찬식

집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실비아의 집에 아침부터 아이들이 사랑을 사러 왔습니다. 예배에 늦지않게 서둘러 가라는 실비아의 이야기를 듣고 걸음을 제촉하는 아이들.. 식사를 마치고 실비아의 가족과 동네 어른, 짐을 잔뜩 싣고 예배가 있을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에 도착할 쯤 아침일찍 보았던 아이들이 멀리 보입니다. 3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도착한 아이들 힘든 모습 속에 미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 예배들이는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African leadership

Newsletter

아프리카 리더십 소식지

2019
8,9 월



리더십프로그램

2019년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나와 학생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리더십프로그램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과정을 통하여 많은 결실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나와 같은 열정의 목소리를 냈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올해에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 과정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학생들이 이해하며 넘어가기 위해서죠.

우리는 올해 학과를 마칠때 학생들이 모든 과정을 잘 이수하길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스텐포드- 매우 활기차고 열망이 가득한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열망하고 있습니다.
- 겐스베이- 이곳에는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 칼리처- 다음주에 성경학교 12주 프로그램이 이곳 캠퍼스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됩니다.

기도제목

교통 주유비 / 교재 인쇄 /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 새로 시작되는 강의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 오버헤드 프로젝터 2대 / 2020년 새로운 캠퍼스에 대한 비전과 실행.





아프리카 신학교(Africa Theological College)

신학교 1년에 7팀 가운데 팀 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중간에 여러 장애물로 인해 신학공부를 포기하는 목회자들/교회 리더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그리 많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분들의 기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1학년 교회사역과 행정(매주 월/목 김인식 선교사), 성경교리(스웰라박사)

2학년 영적지도력(칼라일목사), 요한복음(음프메지목사) 과목들이 강의중입니다. 그리고 올 5월부터 이곳에서 한 시간 떨어진 곳에 지방신학교가 생겨 일주일에 한번씩 또한 강의로 섬기고 있습니다.(매주 화/구약개론: 김인식선교사, 매주 목/신약개론: 스웰라박사)



남아공 기독교학생회(SCO)와 파트너쉽

1년동안 남아공 기독교학생회의 스태프멤버로 등록이 되어 이곳에 있는 전문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섬기며 이단과 혼합종교신앙에 대한 바른 신앙과 올바른 복음에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지역 우간다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SAM (대학생부흥운동)을 8월20일-24일까지 개최하여 참관자로 참석하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와 남아공 대학생부흥운동 개설을 위해 참관)



아버지학교

아프리카 신학교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아버지학교를 8월 30-9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아프리카 리더십 캠프장에서 진행됩니다.

(기도: 인도자 루탄도와 여러 강사들...그리고 26명의 학생들, 10여 명의 스태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아버지학교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2019
8,9 월



핸드벨 음악사역

이스트런던 덩컨빌리지 초등학교 4학년 한반을 대상으로 50여명의 아이들과 핸드벨 음악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따로 음악 수업이 없어 처음으로 악기를 접하는 아이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떠들썩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반복해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화음을 맞추며 연습하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며 핸드벨을 통해 아이들이 주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날이오길 손꼽아 기대하게 됩니다.



남아공 이스트런던 We are Special 어린이사역
Art & Character education School

We are special 성품교육

마사케 초등학교의 200여명의 아이들과 지혜를 배웁니다. 가난한 이곳 아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그 지혜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지 이야기 합니다.

지혜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지..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실천하는 아이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통하여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해 주소서.. 기도합니다.





남아공 이스트런던 We are Special 어린이사역

Art & Character education School

We are special 어린이성경학교

부시템바 센터에서 이번 학기에 <하나님은 어떤분이실까?>란 큰 주제를 놓고 함께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 시작이며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궁핍히 여기시는 주님..]아이들이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은 아이들로 성장하게 인도하소서.



예배 후 성경 미술활동에서 실력이 조금씩 특출난 아이들을 선발해 10명 내외로 더 깊이있게 그림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다음학기에는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 받을 만들어 가르치고 준비한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미술을 사랑하고 잘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을 더 깊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아공 이스트런던 Special me 어린이유치원 사역



시너리파크 리빙쿼터 크러시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감기에 걸려 오지못하던 아이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이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함께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파스한 봄바람을 가르며 바람개비도 만들어 날리고, 주님의 사랑도 접고 색칠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곳 시너리파크 유치원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Nofikile선생님이 독감으로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19
8,9 월



어린이교회 겨울 성경학교

지난달은 정말 은혜의 달입니다. 날씨는 춥고 비가 오지만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어린이교회의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며 주님이 이일을 행하시는 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한 어린이교회에서 약 200여명의 어린이가 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매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감동과 감격이지요.

올해는 9군데에서 하였기에 전체 1,800여명의 어린이들이들과 약 40여명에 가까운 교사들(대부분 청소년들)이 헌신하여 찬양과 율동, 말씀과 기도와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날 교사들을 모아 칼리처의 길거리 고기굽는 곳에서 모여 수고를 달래며 돼지고기를 구워 함께 하였습니다.

3주간의 함께 노력한 교사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의 방학을 모두 바친 것입니다.

지친 몸이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아직 어린 교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져 모든것을 사랑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한 교사들이 잘 성장하여 사회를 하나님나라로 변화시킬 꿈과 소망이 충만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들이 칼리처의 소망입니다.





유치원 수리

매년 겨울철을 맞이하면 우기입니다.

6/7/8월에 한해의 비가 거의 다 옵니다. 비가오면 유치원들이 건물에 비가 스며듭니다.

모나비시 지역의 마시밤바네 유치원은 2005년 건축 되었는데, 바닷가가 가까워 양철로 지은 유치원 지붕이 모두 낡아 바깥에 비가오는 것 같이 물이 쏟아집니다.

캐나다 밴쿠버 단기팀과 더불어 지붕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한번도 못질을 못해본 단기팀원들이지만 열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함께 사역하다 직장을 잡아 떠난 력키가 함께 하여 지붕을 교체하였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유치원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보며 주님이 기뻐하심을 보았지요. 아직도 물이새어 곰팡이 난 벽과 창틀이 비를 맞아 나무가 썩어 바꾸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목수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어야 온전히 고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분이 찾아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여러 유치원에 많은 수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만 되면 답답하지요.

주님! 주님의 사람을 보내 주소서.



2019
8,9 월



단기팀의 뜨거움

올해 7월에는 캐나다 밴쿠버 삼성교회와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에서 단기팀이 다녀갔습니다.

늘 단기팀이 올때마다 설렘이있지요. 팀들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고 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린이교회를 팀들이 진행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것들로 그리고 상황이 맞지 않자 기도하며 상황에 맞추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준비한것보다 더욱 중요한것을 한 어린이가 한 어린이에게 다가가는 주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고 뛰어 노는 모습은 주님이 계신 모습이였지요. 교도소 사역을 담당하며 간증과 대화를 통하여 함께 아파하시고 아무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건축사역을 담당하며 힘듦과 지침이 있지만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하는 모습은 주님의 함께 하심이었지요.

노방전도를 통하여 한 집 한집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생명이 주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냈지요.

단기팀원들을 보내며, 평생 선교사로 인정하고 파송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모든 일가운데 모든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단기팀원들 오늘도 일일이 찾아가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저들이 있는 밴쿠버와 토론토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들어내 주옵소서.





담요 나눔

매년 겨울이 오면, 매년 우기가 오면,

하나님! 주님의 따스함으로 주님의 인자함으로 주님의 백성을 돌보소서, 라고 기도하지요.

모나비시지역의 리더들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7,000가구가 살아가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지요. 마을의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 자녀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하며, 담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미안한마음에 몇장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해 줄수 있는 만큼 해달라 하지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추위에 어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올해도 80장을 이야기 하니 80명의 명단을 적어 보냈습니다. 7,000가구가 사실 다 어려울 터인데, 그중이 줄이고 줄여 보낸 80명의 명단을 보며,

주님! 주님을 마음을 부으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축복하옵소서, 당일 나누며 움훈도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마을 리더들도 욕심이 있을 터인데, 한명도 리더가족들은 받는이가 없었습니다. 주님! 섬김의 리더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리더들속에 풍성케 하옵소서.



2019
8,9 월



어린이교회

옴혼도목사님은 어린이교회 사역자입니다.

벌써 40이 되었지요.

아프리카 리더십과도 15년이 넘게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회 사역은 초등학교 성품교육, 매주 열리는 어린이교회 사역, 성경학교, 및 어린이와 교사 그리고 이머징리더십 캠프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품교육은 공립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로 부터 4/5/6학년의 학생들에게 성품에 관한것을 교육하며 인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기에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 사역입니다.

현재 2 개의 초등학교에서 인툼비와 진틀래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시간 지키기, 선한마음, 미래 개발, 오래 참음, 나눔, 다른 사람인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회는 약 30 지역에서 청소년 교사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방학교 한주, 겨울방학 3 주, 가을방학 1 주를 통하여 매일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40여명의 교사와 약 2000여명의 어린이가 매년 참석하게 됩니다. 또한 주말을 2박3일의 캠프를 통하여 전도와 사랑과 나눔을 캠프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일에 책임을 맡고 있는 움훈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움훈도목사님이 특별한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꿈꾸고 이에 동참할 사역자들이 들어 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African leadership

Newsletter

아프리카리더십 소식지

2019

8,9 월



For the Kingdom

국가 별 코디네이터 소개

남아공: Christopher/ Lucinda, James, Jibi, Masekane, Mfundo/ Thembeke, Ntombi, Patrick/ Ashellita, Syliva, Zintle, Daniel/ Masleen, Carlisle Africa/Sharon
김경환/ 송선아, 김기철/ 정은주, 김종곤/ 정선미, 김인식/ 김재민, 남정훈/ 하정은, 윤찬주/ 장세영, 엄영흠/ 유영애, 임인모/ 강미화, 정몽률/ 이승희,

스와질랜드: 박재춘/ 이윤경, **마다가스카르:** 김경숙, 김한나, 조용문/ 신연경, **레소토:** 김억수/ 김병일

캐나다: Solomon Yoon, Angie Song, Tobi Lin, Raymond Goh **독일:** Simon Schimd, Tobias Werner, Petra Buchfink **싱가폴:** Raniel Lee, Sonny Kwok, Arthur Lee

한국: 김진성, 전지원

